



손해보험회사 지급보험금 급증 불구, 민영의료보험 판매에 집중

왕양비 연구원

■ 2011년 1~5월 중국 건강보험의 누적 지급보험금이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.8% 증가하였으나,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은 민영의료보험 판매에 집중함.

-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*에 따라 올 1~5월 건강보험의 누적 수입보험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.1% 증가에 머문 반면, 누적 지급보험금은 72.8% 증가함.

* 2009년 10월 통과된 보험법 수정안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거절 허용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- 이에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민영의료보험 판매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손해보험회사들은 지급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액실비보장 민영의료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짐.

- 현재 중국의 일반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70~90%에 달하는 반면, 고액실비보장 민영의료보험은 50~60%에 불과함.
- 이는 고액실비보장 민영의료보험의 구매자들이 대부분 부유층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청구에서 발생 가능한 도덕적 리스크가 작다는데 기인함.
- 또한 일반 민영의료보험보다 고액실비보장보험이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 종류도 다양화할 수 있어 장기적 이익이 가능한 상품으로 판단함.

■ AXA보험의 아시아담당 CEO Stephen Ryan은 민영의료보험의 높은 지급률이 보험회사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과 통제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상품설계와 효율산출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힘.

(봉황 재경 보도 등, 7/4)